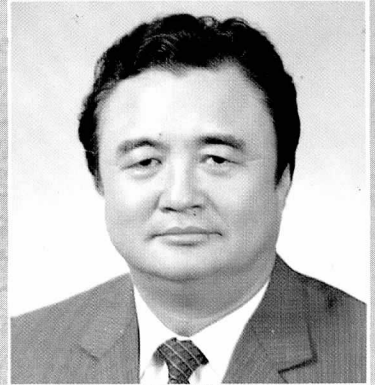


회원사의 사업환경 개선과 당국의 정책개발에 협조



회 장 송 철 조

기사너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고자 심혈을 기울여 온 정보통신산업인 모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미국의 종합무역법 발효에 따른 통상마찰의 심화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그리고 내적으로는 임금인상과 원자재 가격상승, 계속되는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많은 업체들이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속에서도 관계 당국의 지원과 업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88년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3년 계속하여 연 12%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14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새해에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의 전환과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한발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소의 신데탕트, 우리나라에 대한 중·소의 개방무드, 공산권과의 교류확대, 남북한 경제교류 가시화 등으로 시작되는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한민족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각국에서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사회를 향한 대변혁에 다투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보통신산업인은 미래 정보화사회 건

설의 조기 실현을 위한 중추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성장 발전시켜야 할 책임감과 긍지를 더 한층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제작년 출범이후, 실질적인 첫해로써 지난해에 회원 여러분과 관련기관 및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협회활동의 활성화와 정보화사회의 조기구현 및 회원의 권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각종 조사, 연구활동, 법제활동, 홍보출판, 학술행사, 국제교류 등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계에 협회 나름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회원사의 사업환경 개선과 관련당국의 정책개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여러분과 정보통신산업계에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우리사회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회원 여러분과 관계 당국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및 동참이 있어야 소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정보통신산업인 모두와 회원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